

봉축 수상



한승원 소설가

부처님의 맨발은 불교 정신의 요체



초파일에 그리운 연꽃 등불 하나 / 너를 위해 달았다. / 금산사 가는 산굽이 위에서 / 밤은 별들을 초롱같이 켜 달았다. / 이 여름엔 나도 한 점 혼령이 될 거나 / 눈 부릅뜨고 수목화 같은 너의 숲을 헤매는 / 철이른 반딧불이나 될 거나.

나의 시 <그리운 연꽃 등불 하나> 전문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해서 반딧불이 절에 가서 연등을 단다. 나와 가족을 위해 달고, 그리운 이를 위해 달고, 우리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 단다.

우리들에게는 '가난한 자의 등불 하나(貧者一燈)'라는 일화가 전해온다. 가난한 사람이 전 재산을 모아 켜 등불 하나라는 뜻으로,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정성이 중요함을 비유하는 말로 널리 쓰이고 있다.

등불이란 무엇인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직전에, 제자들이 울면서 "스승님께서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디에 의탁해야 합니까?"하고 묻자, 부처님이 대답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하나의 섬이다. 신에게도 의탁 말고 악마에게도 의탁하지 말고, 자기 등불 자기가 켜주고, 부단히 정진 하여라."

나는 그 마지막의 말씀을 늘 가슴 깊이 새기고, 절대 고독자인 나를 성찰하는 한 방법으로 연등을 밝힌다. 연등을 켜는 것은 나눔의 미학이기도 하다. 빈자일등은 모든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 세상을 구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바야흐로 이 세상은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질서가 지배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정글세상이다. 부처님은 아파, 눈 감으면 코를 베어가는 무서운 디지털적인 야만의 정글세상에서 방향감을 잃은 우리들을 구제하려고 오실 것이다.

정원에 하얗게 벌어진 불도화가 부처님 오신 날이 돌아오고 있음을 노래로 들려준다. 그 소담스럽고 하얀 노래를 듣고 들어와 이 글을 쓴다. 나는 스스로를 부처님의 신도라고 말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신화적인 분위기를

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고매한 성인이다. 신이 사는 하늘과 악마들이 사는 지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모두 통달한 성인이므로 신화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이다. 신화는 진리 그 자체는 아니지만 진리를 낳는 자궁은 된다고, 신화학자들은 말한다. 나는 생각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신화 그 자체, 그리고 진리 그 자체라고.

나는 한 사람의 외로운 늙은 남자이다. 나쁜 아니라 의식이 흐려진 모든 늙은이들에게는 우울증이 있다. 노인

방황하는 싯다르타는 스스로 절대 고독자임을 깨닫고 있었으므로, 천국이나 극락에서 다시 태어나 행복을 누리기를 위해 자학 같은 고행의 수도를 하는 것을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

따지고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사람의 저항적인 인물이었다.

인도에는 카스트라는 계급제도가 극심했다. 승려계급인 브라만, 귀족과 무사 계급인 크샤트리아, 농사와 상업 계급의 바이샤, 노예계급인 수드라, 그리고 그 네 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불

서 힘 약한 자들에게 평평거리며 사는 귀족들, 돈을 억수로 많이 가지고 세상을 주물럭거리리는 자본가와 그 밑에서 풍고물을 얻어먹으며 오스대는 자들도 어리석고 가엾은 중생들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출가를 한 것이었다.

출가를 할 때 맨발이었던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다음 어리석은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세상을 돌아다닐 때에도 맨발이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은 운명적으로 길 위에 놓여 있었다. 석가모니의 어머니가 친정으로 아기를 낳기 위해 가던 중에 길 위에서 석가모니를 낳았는데, 석가모니는 맨발로 길을 걸어 다니다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그런 다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맨발로 길을 걸어 다니면서 설법을 했고, 늙어 열반에 든 것도 길 위에서였다.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맨발은 곧 불교의 정신의 요체인 것이다.

*나는 절에 가면 부처님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결국 나에게 하는 절이다. 내가 부처님이 되고 부처님이 나이다. 절하는 동안 나 스스로를 성찰한다. 참회하고 또 참회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자비로운 영혼과 육체를 건설한다. 엎드려 하는 <절>은 사찰이란 뜻의 '절'과 동의어이다.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한반도에는 엎드려 절하는 풍습이 없었는데, 절(데라)이 들어오면서 절하는 풍습이 생긴 것이다.

"절하고 싶어 / 절에 갑니다. / 절하고 또 절하면 내 병 낫습니다, 땀 뻘뻘 흘리며 / 절하는 한 순간 한 순간의 절은 / 영원을 찌는 피륙 / 절하고 싶어 절에 갑니다."

이것은 나의 시 <절>의 전문이다. 부처님 오신날, 부디 절에 가서서 나와 그리운 이와 우리들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붉은 마음으로 연등을 달고, 절하고 또 절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정신을 깨닫고 복 받으시기를 기원한다.

'맨발'로 대지 밟는 것, 버리고 떠나는 '출가' 부처님의 출가는 神에 의존하는 의식을 바꿔 출제가 모두 봉축과 함께 출가정신 되새겨야

우울증은 늙어진 영혼과 육체의 폐경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그러한 늙은이인 내가 한 사람의 제자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자비로운 삶과 사상과 그 실천을 배우기 위해서이다.

*작고 가난한 나라의 왕자로 나고 자란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린 시절의 이름은 싯다르타였다. 나는 젊은 싯다르타의 고독과 고뇌와 절망과 방황과 출가와 수도와 깨달음에 이르는 고행의 과정을 한 편의 소설로 형상화한 바 있다. 소설책의 제목이 <사람의 맨발>이다.

<맨발>이란 무엇인가. 무소유와 해탈과 자비로운 구원의 실천 정신이다. 맨발로 대지를 밟고 다니는 그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출가 정신이기도 하다.

인간의 삶은 절대고독에서부터 시작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한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나 혼자 우뚝 선 존귀한 존재라는 뜻인데, 그것은 오만한 스스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신과 악마에게 의탁하지 않는 절대고독자로서의 존엄함을 말하는 것이다.

가죽천민(Untouchable)이 그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그 계급을 받고 태어나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믿고 있었다. 수도자들은 다음 생에서는 하늘에서 태어나 영화를 누리기를 위해 고행적인 수도를 했고, 일반 사람들은 다음 생에서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계급에서 태어나기 위해 신계 기도하며 살았다.

일부의 불가족천민이나 노예계급 수드라들은 그 삶이 하도 절망적이어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얼른 죽여 좋은 계급으로 태어나라고 그 아이를 강물에 던져버렸다고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는, 인간의 행복과 정치적인 부정부패까지도 신의 뜻이라 믿고, 신계 의탁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바꿈으로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중생이란, 가난하고 핍박 받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미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힘없어 핍박 받는 자,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지은 자, 그들의 생살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나 그 밑에 빌붙어 아부야첨하면

社說 '빈자일등'의 고결한 정신 지켜야

<현우경(賢愚經)> '빈나난타품(貧女難陀品)'에는 '빈자일등(貧者一燈)'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위국(舍衛國)의 한 정사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난타(難陀)라는 가난한 여인은 등불 하나를 올리고 싶었지만, 너무 가난해 등불을 구할 수 없었다. 여인은 하루동안 구걸하며 겨우 한 톨을 구했고, 이 돈으로 기름을 사려 했지만 너무 적은 돈이라 살 수 없었다.

이에 여인은 기름장수에게 간절히 기름을 팔 것을 청원했고, 여인의 정성에 감동한 기름 장수는 등불을 켜 만큼 충분한 기름을 여인에게 줬다. 난타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지극한 마음으로 등불을 켜다, 하루가 지나자 다른 사람들의 등불은 꺼졌지만, 난타의 등불만이 오롯이 빛을 내고 있었다.

이때부터 '가난한 사람이 켜는 등불 하나(貧者一燈)'라는 소중한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해 베푸는 선행을 의미하거나 물질보다는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된다.

현재 한국불교는 '빈자일등'의 정신을 돌아봐야 한다. 교구본사 주지를 역임한 스님과 사무장이 국조보조금 편취로 구속 수감됐으며, 조계종·대교종 등 주요 종단의 대내외 갈등은 식을 줄 모른다. '대입수험 기도'와 같은 기복신앙은 21세기에도 정점을 찍고 있으며, 대궐 같은 사찰을 짓는 대형 불사가 종교적 위의를 보여준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오늘날 우리의 불교는 붓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매년 부처님 오신날이 되면 떠오르는 '빈자일등'의 교훈은 한국 불교에 대한 준엄한 경책이다. 다시 한번 '빈자일등'의 정신을 되새기자.

불교, '가족 신행'에 주목할 때

모든 사회 구조의 기본은 '가족'이다. 가족이 제대로 운영될 때 사회와 종교는 바로 설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 종교 지형을 살펴보면 개종률은 떨어지고 있으며, '가족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1984년 개종을 경험한 사람은 17%에 달했지만, 2014년에는 10%로 줄어들었다. 반면, 가족 간 종교 일치율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10대 이전에 자신의 종교를 결정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세대 전승에 있어서 불교가 불리한 점은 10~30대의 미래 세대가 50~60대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이다. 이는 세대를 이어 불교를 신앙할 미래세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연령별로 보면 불교는 10~20대가 전체 불교인구의 10%, 30대는 11%에 불과하다. 반면 50~60대 인구는 각각 30%를 상회하고 있다. 조사 기관들도 불교의 인구확장성에 대해서는 부정

적인 입장을 보인다.

흔히 불교에 일각에서는 이런 착각을 한다. '템플스테이나 힐링 문화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은 불교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호감은 어디까지 호감이지 진정한 신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젊은이들에게 '힐링 문화'는 일종의 '자기 계발의 도구'이자 '사유를 가장한 소비'이다.

이제는 가족들이 사찰에 올 수 있는 문화와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이를 기 반하는 것이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다. 미래세대가 사찰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찰은 '스님 중심'이 아닌 '신도·재가 중심'이라는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불자들 역시 개신교·가톨릭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법회 참석·경전 읽기·수행 빈도를 높이고, 스스로를 변화해 가족들을 불교로 이끌어야 한다. 포교는 '가족부터'라는 것을 잊지 말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환

(우)03150 서울특별시 중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Table with 2 columns: Contact info (편집국, 광고국) and Website info (웹사이트, 실시간 뉴스, 쇼핑몰).

Table with 2 columns: Modern Buddhism (현대불교) and Information (지사안내).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佛紀 2560年 丙申年 Buddha's birthday |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질투와 인색함과 속임수를 뿌리째 뽑아 없애 버리고 성냄에서 벗어난 사람을 훌륭한 인물이라 한다. 법구경

부산연제구 불교연합회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회원일동

배산 송광정사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주 지 진 각 교육학박사

사부대중일동

■ 부산 연제구 연수로 2225번길 15 지하철 배산역 4번출구 연산동 연미시장 TEL 051)867-8438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라오스 후원단체 '라오의 산들바람'

주 지 보광 사부대중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77번가길 72 (초읍동) TEL 051)809-1420 FAX 051)819-1425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사

문수불교문화원

회 주 법 홍 주 지 지원 신도회장 이금강심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599-4 TEL 051)624-3754, 7848 FAX 051)623-9253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사

주 지 윤암 현엽

신도일동

■ 부산시 강서구 제도로 29 TEL 051)271-2774